



교회 및 지방소식

75년 한국대회

AREA AREA GENERAL CONFERENCE



대회에서 말씀하시는 고마쯔 십이사도보조

한국 대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대회가 8월 15일, 16일, 17일간에 걸쳐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8월 15일 오후 1시에 김포 공항에 도착한 김볼 대관장 부처와 총관리 역원은 마중 나온 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으며 텐더에플스 합창단으로부터 환영의 노래를 선사 받았다. 이들은 도착 즉시 국립 묘지를 참배하여 무명 용사비에 헌화하였고 이어 순국 1주기를 맞는 육여사의 묘소에도 참배하였다.

대관장과 총관리 역원은 조선 호텔에 여장을 풀었고, 대회의 첫날인 15일 저녁 7시에는 문화의 밤 행사에 참석하였다. 대회 이틀째인 16일 아침 일찌기 총관리 역원은 국립 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관해 설명들었고 진열된 금판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9시에는 장충체육관 귀빈실에서 대관장단과 사도를 모시고 기자 회견이 있었다. 10시에 오전 총회에서 대관장을 신전 건립을 발표하였고 이어 4시에는 오후 총회가 있었으며 5시 30분에 청소년의 밤이, 7시 30분부터는 부모의 밤이 진행되었다.

대회 삼일째인 17일 10시에 오전 총회가 시작되었고 4시에 오후 총회를 끝으로 3일간의 대회를 모두 마쳤다. 한편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바바라 스미스 자매는 이날 10시 KBS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범세계적인 조직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상호부조회를 소개한 바 있다.

본 대회의 개최사를 통해 김볼 대관장은 일본 동경에 아시아인을 위한 신전이 세워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항 귀빈실에 도착한 일행



환영나온 성도들에게 답례하시는 대관장님



무명용사비에 헌화



무명용사비에 분향



방명록에 서명하시는 대관장님



육영수 여사님의 명복을 비는 롬니 부대관장



육여사 묘소에 오르는 종관리역원 일행



기자 회견을 하시는 대관장님



문화의 밤에 입장하시는 대관장님 부처



문화의 밤을 참관하시는 총관리역원



영남지방부의 어랑춤



농악



태권도 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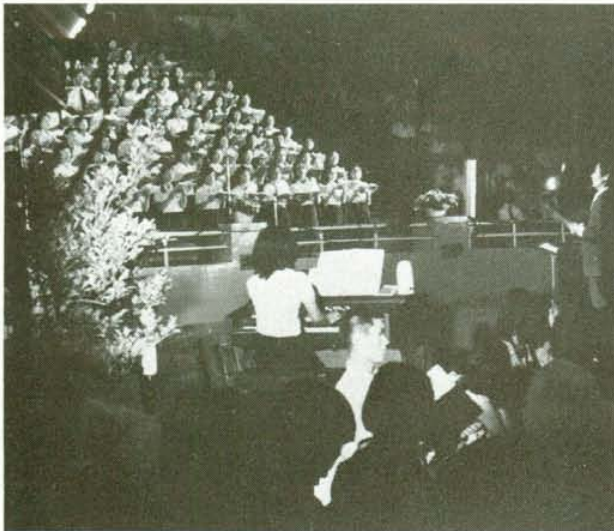
태권도



말씀하시는 대관장님



금강 경관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본부 임원들



연합 합창단



작별인사를 나누는 대관장님



케이 비 에스 방송국 녹화



작별을 고하는 성도들